

#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	2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sup>2</sup>	G D P	1,665억 달러 (2009년)
인구	181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918달러 (2009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 (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81.71 (2009)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1947년 8월 17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
- 농업 및 섬유제품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재정수지 적자 증가, 과도한 외채부담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친미 정책으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 최근 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자르다리 현 대통령에 대한 사임 압력,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식료품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난 등 정치 및 사회 불안요인이 파키스탄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6.2	5.7	2.0	3.7	2.8
재정수지/GDP	-4.2	-4.5	-7.6	-5.2	-5.5
소비자물가상승률	7.9	7.6	20.3	13.6	11.4

자료: IMF 및 EIU

#### □ 세계경기 침체 및 사회 불안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 2001년 9. 11 사태 이후 무샤라프 정권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면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경제개혁 및 적극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2007년까지 4년간 연간 6~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 이슬람 세력과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 및 투자 감소,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상품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부문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0%로 급락하였음.
-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른 정부의 개발지출 축소, 정국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축, 세계경기 불안 지속 등으로 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지출이 억제되면서,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국내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물가상승 완화

-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과 지진 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05년 9.1%를 기록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의 긴축 통화정책 및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6~07년 7%대로 다소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식료품 가격 상승,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 수입관세 및 공공요금 인상, 파키스탄 루피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3%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내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 감소 등으로 13.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도 식료품 및 공공요금 인상, 수입관세 인상, 재정수지 적자 지속, 루피화 환율 약세 등 물가상승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1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통화정책 완화 및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 약세 지속

-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자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2009년 4~1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4%에서 12.5%로 150bp 인하하였음.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경우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10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미달러화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의 환율이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2009년에도 루피화의 평균환율이 전년대비 13.8% 상승한 81.7루피/US\$를 기록하였음.
-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 경제지표 개선, 원조국의 지원 약속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 상승,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루피화 의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국방비 증가와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적자 축소는 어려울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지원,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군비 축소, 정부의 세수 증대 등에 힘입어 GDP의 2% 수준으로 축소되었던 재정수지 적자가 2005년 10월 이후 지진 복구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의 4%대로 증가하였음.
- 2008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세수가 급감한데다가, 정치 불안으로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목표인 GDP의 4%를 훨씬 초과한 7.6%를 기록하였음.
- 2008년 11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사회질서 및 치안부문의 지출, 북서국경지방 치안을 위한 보조금 등은 급증하는 반면, 치안 불안으로 인한 산업 및 무역활동 감소로 세수 증가율은 둔화되어 재정수지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IMF가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당초 GDP의 3.4%에서 4.9%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GDP의 5.5%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섬유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경제기반 취약

- 농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 이하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주요 농작물인 면화를 기반으로 한 섬유부문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면서 파키스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면화는 페스트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뭄과 홍수에 취약한 작물임에 따라, 면화 작황에 따라 농업부문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임.

□ **공적채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공적채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규모의 채무 리스케줄링 및 무상원조를 받았음. 2001~02년 미국의 7억 달러 규모의 원조, 2002년 초 125억 달러의 채무를 30년에 걸쳐 리스케줄링을 받았음.
- 2008년 말 파키스탄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IMF로부터 76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받는데 이어,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2009년 8월에 IMF의 지원금액이 113억 달러로 증액되었음.

□ **열악한 인프라 여건**

- 인구 증가에 따라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십 년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전력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약 60%가 전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전이 실시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파키스탄의 정국불안 및 경제위기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사업부문은 민간에 개방되었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만한 충분한 후속조치 결여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여러 외국인투자 유인 요소 보유**

- 파키스탄은 저임의 노동력 풍부, 대 선진국 우회 수출기지 활용 가능성, 인구 1억 8,140만 명의 큰 내수시장, 주요 원자재 보유 등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만한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 및 사회적 불안, 이슬람세력의 테러 위험 등과 더불어 기술 숙련공 부족, 인프라 취약, 부정부패 만연,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실행 등이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중

- 2008년 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이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어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자율권을 상당 부분 제약받게 되었음.
- 2010년 2월 파키스탄의 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IMF의 검토 결과,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제외하고 환율 안정, 외환보유액(2010년 2월 중반 143억 달러) 증가, 일부 경제부문 회복세 및 대외부문 개선 조짐 등 대부분의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6,750	-8,286	-15,402	-2,172	-3,887
경상수지 / GDP	-5.3	-5.8	-9.3	-1.3	-2.3
상 품 수 지	-9,647	-10,587	-16,769	-9,640	-13,135
수 출	17,049	18,188	21,328	18,518	18,954
수 입	26,696	28,775	38,097	28,158	32,089
외 환 보 유 액	11,543	14,044	7,194	11,318	..
총 외 채 잔 액	35,877	40,680	46,335	51,778	56,272
총외채잔액/GDP	28.2	28.4	28.1	31.1	33.4
D. S. R.	8.6	8.9	11.5	10.8	12.5

자료: IFS 및 EIU

□ 국내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에 따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수출품인 섬유 및 관련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GDP의 9.3%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라 국내수요 축소를 위한 긴축 정책이 실시되었고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수입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2008년 168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수출수요 급감, 지속적인 전력 부족, 공공요금 인상, 치안 악화 등 국내 요인으로 섬유부문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은 전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수입은 경제성장세와 유가 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2001년 이후 급증한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상품수지 적자의 50% 이상을 보전해 왔으며, 2009년에도 전년대비 약 24% 증가함으로써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2009년 9월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IMF의 금융지원 등으로 유동성 위기 진정**

- 2008년 10월 대외부채 상환을 감안한 실질적인 외환보유액이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한 달 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등 대외지급불능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1월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 76억 달러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긴 상태임.
- 또한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 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 IMF로부터 추가로 37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금융지원을 받아 2009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1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IMF 구제금융 등 차관 유입으로 외채잔액 크게 증가**

- 파키스탄은 2000년까지 외환보유액이 15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원 덕분에 경제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이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여 왔음.



- 그러나 2008년 세계경기 침체, 정국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 외채의 만기도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파키스탄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08년 11월 파키스탄은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긴급한 유동성 위기를 넘겼으며, 이후 IMF 및 원조국들의 차관 유입으로 2009년 외채잔액은 51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도 563억 달러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사면 무효화 판결에 따라 자르다리 대통령의 입지 약화

- 2009년 12월 파키스탄 대법원이 2007년 5월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전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국가화해명령(National Reconciliation Ordinance: NRO)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을 포함한 8,014명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무효화되었음.
- 동 사면령은 당시 무샤라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인인 고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 전 총리와 권력분점 협상을 시도하면서 단행한 정치적 뒷거래의 산물로서, 수많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던 자르다리 대통령이 사면을 받게 되었음.
- 사면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자르다리 대통령은 면책특권 덕분에 당장 기소되지 않았으나,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Nawaz: PMF-N)는 자르다리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을 문제 삼아 사임을 요구하였음.

##### □ 사법부와 행정부, 여·야당간 정치적 대립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

- 사면령 무효화에 이어 대법원은 2010년 2월 자르다리 대통령의 신임 법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자르다리 대통령은 법관 임명을 철회하기에 이룸.

- 초우더리(Iftikar Chaudry) 대법원장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 재임시 직무 정지된 바 있으며, 2009년 2월 복권될 때부터 과거사 청산 문제 등으로 자르다리 대통령과의 대립이 예견되어 왔음.
- 한편, 최대 야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F-N)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고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여당인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과 계속 대립하고 있음.
- 자르다리 대통령이 무샤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강화되었던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도록 압력을 받는 가운데 2009년 12월 핵 지휘권을 유수프 라자 길라니(Yusuf Raza Gilani) 총리에게 이양하였으며, 길라니 총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자르다리 대통령과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이 파키스탄 내에서 벌이는 탈레반 소탕작전에 대해 파키스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미 성향의 자르다리 대통령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파키스탄 군부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 사회동향

### □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사회 불안 요인 상존

- 파키스탄 서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FATA) 및 북서국경지방(North West Frontier Province: NWFP)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탈레반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파키스탄 군대와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에 있는 탈레반 활동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벌여 파키스탄 탈레반운동(Tehrik-i-Taliban Pakistan: TTP)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등 이슬람 무장세력 소탕작전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대공세로 주요 거점을 잃게 된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의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들에 의한 폭탄 테러가 여러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보 위협과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의 탈레반 무장세력 공격으로 인한 파키스탄과 긴장 고조

- 2001년 9. 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전통적 우방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대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탈레반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개발원조 등이 있으며, 2009년 말에 75억 달러 규모의 비군사적 지원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 최근 탈레반 세력에 대한 미국의 무인폭격기 공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각지에서 보복성 폭탄 테러가 계속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파키스탄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주권 침해 논란과 미국의 무인전투기 기술 이전 거부 등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미국간의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한편, 파키스탄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친미 성향의 자르다리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약화로 실각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 예상

- 인도와는 1947년 분리 독립 때부터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대립, 방글라데시 독립, 카슈미르 영토 문제 등으로 3번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왔음.
- 2001년 말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도 의사당 공격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미국 등의 중재로 양국간 평화협상이 재개된 이후, 2003년 11월 카슈미르 통제선에 대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신뢰 회복 조치들이 전개되어 왔음.

- 그러나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하여 양국간 대화가 중단되었다가 2010년 2월 외무차관급 회담으로 재개되었으나, 양국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합의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됨에 따라 양국간 신뢰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와 구소련에 대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통적인 반감으로 인하여 양국은 서로를 중요한 우방으로 인식해 왔으며, 중국이 파키스탄 앞으로 원자력 및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군사관계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06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핵을 비롯한 에너지, 통상, 인프라,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8개 합의안에 서명하였고, 2006년 42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규모를 5년 이내에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2009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sup>1)</sup>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파키스탄 앞으로 난민 지원을 위해 6,000만 위안(약 11억 원)의 원조 제공을 약속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과중한 대외채무 부담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및 채무재조정에 의존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독자적으로 외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무샤라프 대통령이 집권기반 강화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 지원과 채무재조정 성과를 얻어 내었음.

1)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역내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회의에서 벨로루시, 스리랑카가 대화동반자 자격을 얻었음.

- 국제사회의 대 파키스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 (2001년 9월) 및 총 30억 달러의 경제지원 자금 제공(2003년 6월), IMF의 13억 달러 규모의 빈곤퇴치 및 성장촉진 차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공여, 파리클럽의 125억 달러 공공채무에 대한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합의, EU의 대 파키스탄 일반특혜관세제도 부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들이 원조를 제공하였음.

□ 2008년 말 IMF 및 원조국들의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 진정

- 2008년 말 파키스탄은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대외지급불능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2008년 11월 IMF로부터 76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겼음. 2009년 8월 IMF 지원 금액이 113억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4차분 12억 달러가 집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65억 4,000만 달러가 집행되었음.
- 이외에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 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긴급한 유동성 위기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며,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경제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09.12)	D2 (2008.10)
OECD	7등급 (2009. 4)	6등급 (2008. 4)
S&P	B- (2009. 8)	CCC+ (2008.12)
Moody's	B3 (2008.10)	B2 (2008. 5)

\* Euromoney: 143/186 (2009. 3) → 124/186 (2009. 9) → 115/186 (2010. 3)  
 \* I.I.: 98/174 (2008. 9) → 145/177 (2009. 3) → 143/178 (2009. 9)  
 \* I.C.R.G.: 134/140 (2009. 7) → 129/140 (2009. 10) → 126/140 (2010. 1)

- OECD는 자르다리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 불안 고조,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제상황 악화, 재정적자 증가 등의 사유로 2009년 4월 국가신용도평가 회의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2008년 10월 Moody's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및 미국,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적기에 자금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함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외 유동성이 개선되고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대외지급불능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S&P는 2009년 8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3. 주요 ECA 인수 태도

- US Eximbank : 제한적 인수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3년 11월 7일(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88), 항공협정(199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출	678	840	730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철강관
수입	491	631	382	석유제품, 동제품, 천연섬유사
합계	1,169	1,471	1,112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과의 교역 규모는 2007년 11억 6,900만 달러, 2008년 14억 7,1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24.4% 감소한 11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12월말 현재 62건, 약 4,672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 VI. 종합 의견

- 농업 및 섬유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지속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키스탄의 경제여건은 열악하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대미 협조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을 받아 2007년까지 4년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정치·사회 불안 고조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008년 2.0%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다소 회복되어 3.7%의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말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은 대외지급불능 위기에 처했으나, 2008년 11월 IMF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긴 상태이며, IMF의 지원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 2009년 4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 파키스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008년 10월 Moody's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3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파키스탄의 대외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2009년 8월 S&P는 CCC+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음.
- 과거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사면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면서 자르다리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등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미국과 파키스탄 군대의 탈레반 세력 소탕작전에 대항하는 보복성 폭탄테러로 사회불안도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이 파키스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문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mailto:sjpaik@koreaexim.go.kr)